

문 의	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	과 장 최철승 주무관 김혜연	042-481-5331 042-481-8428
  2021년 6월 30일(수) 오전 9시 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	

특허청, 디자인 「신한국분류체계」 오는 7.1일부터 시행

- 하나의 분류로 출원부터 심사까지, 출원인 권리확보 예측가능성 높여 -

- 특허청(청장 김용래)은 디자인 물품분류체계를 오는 7월 1일부터 로카르노 국제분류를 기반으로 한 「신한국분류체계(LUC, Locarno-based Unified Classification*)」로 전면 전환한다.
 - * LUC : 로카르노 국제분류 기반 통합형 신한국분류체계
 - 물품분류는 디자인 출원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용도 및 기능, 형태 별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분류하여 출원된 디자인과 동일·유사한 선행 디자인을 찾기 위한 제도로 출원 및 심사의 기초가 된다.
- 우리나라는 「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」 가입에 따른 국제 디자인 출원제도 시행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 로카르노 국제분류를 공식 분류로 채택하여 출원단계에서 활용하고 있으나,
 - 출원된 디자인의 권리부여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단계에서는 검색 효율성이 높은 국내분류를 그대로 사용하던 것을 국제 기준에 맞게 통합한 것이다.
- 그동안 분류 체계를 이원화하여 운영함에 따라 출원단계의 국제분류 물품범위와 심사단계의 국내분류 물품범위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어 출원인이 물품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었다.

【 물품의 유사성 판단 혼동 사례 】

- “디자인등록출원 전 키프리스에서 선행디자인 조사를 하던 중 로카르노 국제분류가 06류-11군으로 동일한 ‘놀이용 매트’와 ‘유아용 매트’가 국내분류는 각각 ‘E2-50’, ‘C1-13’으로 달라서 어떤 분류를 기준으로, 어디까지 유사한 물품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.”(출원인 A씨)

- 이번에 특허청이 ‘류(Class)’와 ‘군(Sub-class)’으로 구성된 국제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검색 효율성이 우수한 국내분류를 통합한 선진형 신한국분류체계를 개발하여 시행함에 따라
 - 개인 디자이너 및 기업이 디자인 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허청 심사관과 동일한 기준으로 물품의 유사 여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어 권리확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으며,
 - 국제기준에 부합한 물품분류체계 운영으로 헤이그협정에 가입한 주요국들과 2년 주기로 시행되는 로카르노 물품분류 개정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.
- 새롭게 시행되는 신한국분류체계는 7월 1일 이후 출원 건부터 심사단계에만 적용되며, 출원단계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국제분류를 활용하면 된다.

< 디자인 출원 및 심사 단계별 활용 물품분류 비교 >

현 행	출원 단계	물품분류심사 단계		실체심사 단계	등록 단계
	국제분류 (Class)	국제분류 (Class-Subcl.)	(구)국내분류	(구)국내분류	국제분류 (Class-Subcl.)
개 선	출원 단계	물품분류심사 단계		실체심사 단계	등록 단계
	국제분류 (Class)	국제분류 기반 신한국분류 (Class-Subcl. + 한국형 세분화 분류*)		국제분류 기반 신한국분류 (Class-Subcl. + 한국형 세분화 분류)	국제분류 (Class-Subcl.)

* 심사단계에서의 효율적인 선행디자인 조사를 위해 로카르노 국제분류를 세분화

-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“신한국분류체계의 도입으로 선행 디자인 조사의 효율성이 높아져 심사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”면서, “특허청은 디자인 트렌드 변화의 가속화에 대비하여 강한 디자인권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.”라고 덧붙였다.

※붙임: 디자인 신한국분류체계 설명자료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디자인심사정책과 김혜연 주무관(☎ 042-481-842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

1. 신한국분류체계 개요

- (목적) 기존 2개의 물품분류체계 운용*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심사품질을 제고하고 국제적 디자인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

* '14. 7. 국제디자인출원제도 시행 이후 로카르노 국제분류(출원단계)와 국내 분류(심사단계)를 병행 사용 중

- (분류체계) 로카르노 국제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검색 효율성이 높은 국내분류를 통합한 선진형 신한국분류체계(LUC)* 개발·도입('21. 7. 1.)

* LUC(Locarno-based Unified Classification) : 로카르노 국제분류 기반 통합형 신한국분류체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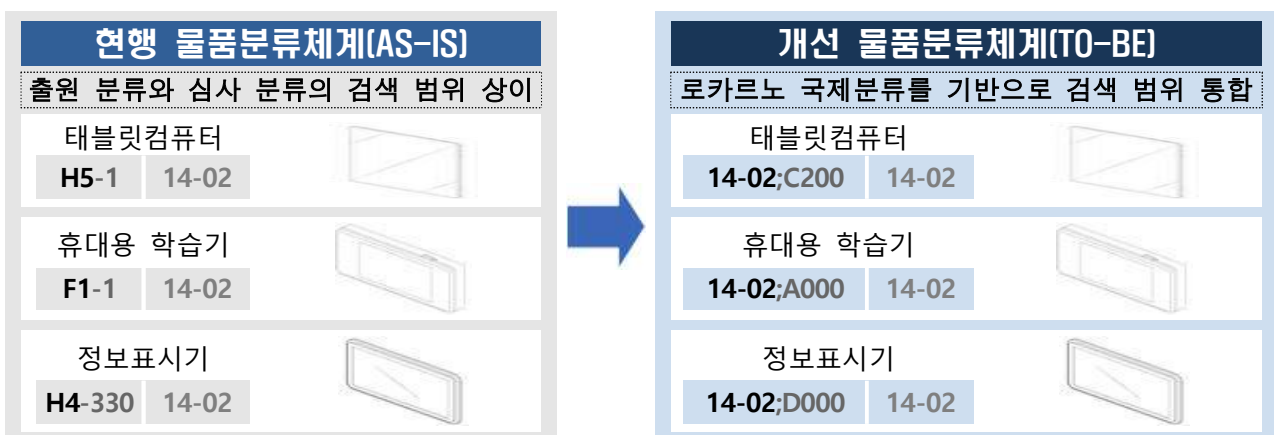
【 물품분류체계별 구성 】

구분	[구] 국내분류	로카르노 국제분류	신한국분류 (LUC)
개요	용도 중심 물품분류 체계	디자인 국제 물품분류체계로 기능 중심으로 분류	로카르노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심사에 적합하게 세분류 구성
구성	75개 대분류 / 3,520개 소분류	32개류 / 237개 군	31개류 / 4,087개 세분류
활용	심사관	출원인 / 심사관	심사관

※ 출원인은 현재와 동일하게 로카르노 국제분류에 따라 출원

2. 기대효과

- (출원인 편의 증대) 로카르노 국제분류와 국내분류의 검색 범위 불일치에 따른 물품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혼동 방지



- (심사품질 제고) 통합된 물품분류체계 운용을 통해 2중 분류심사로 인한 심사관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, 선행디자인 조사 효율성 제고
- (국제 경쟁력 강화) 국제 디자인 문헌 구축 및 로카르노 분류 관련 대응에 유리하여 헤이그협정에 가입한 주요 국가와 협력관계 증대